미국의 한국 안보실 도·감청…尹 방미 앞두고 '일파만파'

대통령실·국힘 "사실 확인이 우선"
국가안보실 보안 점검·강화 검토
유승민 "대통령실 한심하고 비굴"
민주 "동맹국 도청 심각한 문제"

대통령실은 10일 미국 정보당국의 한국 정부에 대한 도·감청 의혹 보도가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여야도 이날 이와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부터 아직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신중한 입장에는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이번 유출 사건 배후로 러시아 정부나 친러시아 조직이 지목된 가운데 동맹을 이간질하려는 의도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경계심도 읽힌다.

다만 이런 기류와는 별개로 국가안보실과 대통령경호처 차원의 자체적인 보안 점검 또는 강화 조치도 물밑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 신중 기류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격을 날을 세웠다.

이날 국민의힘은 당 최고위 회의나 논평 등 공식적인 채널에서는 이번 도청 의혹과 관련한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

김기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가 끝난 후 기자들의 질문에 "우선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도·감청이 있었는지 자체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사안이 불거지게 되면 누가 이익이 되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그런 만큼 제3국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이 문제는 내용을 잘 살펴본 다음에 대응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에서 미국·러시아 사이 여러 가지 갈등을 고려해보면, 이 문제에 대해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 뭔 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지도부의 신중한 입장과 별개로 미국 측에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당내에서 산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유승민 의원은 전날 SNS에 이번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 측 대응에 "한심하고 비굴하기 짝이 없다. 항의해도 시원찮을 판에 무슨 협의를 한다는 말인가"라며 "윤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동맹국간 도청이라는 엄중한 문제를 흐지부지 지나갈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미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 사과도 요구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모든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고 미국과 한국은 동맹관계"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동맹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상호 존중이어야 한다"며 "일국의 대통령실이 도청에 뚫린다고 하는 것도 황당무계한 일이지만 동맹국가의 대통령실 집무실을 도청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객관적인 내용을 확인해 가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우리 경제의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며 "무작정 시간이 지나면 중국 수출이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펼 때가 아니라 정부가 강력한 대응을, 효율적 대응을 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 박홍근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이수진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윈재옥 '협상 파트너' 박홍근 첫 만남…"충분히 소통하고 협치"

신임 인사차 김의장도 예방

국민의힘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가 10일 취임 인사차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찾아가 첫인사를 나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찾은 윤 신임 원내대표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며 "윤 대표님은 저와 초선 때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2년 동안, 최근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같이 상임위 활동을 했다. 더구나 2017년 12월부터 5~6개월 가량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로 합을 맞춰 본 바가 있다"고 인연을 소개했다.

이어 "저로서는 평소 소통이 잘 되는 여당 원내대표를 모시게 돼서 기대가 크다"며 "윤 대표께서 '국민 목소리를 잘 경청하겠다', '(용산에) 쓴소리도 잘 전달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던데, 윤 대표님을 중심으로 국회가 입법부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좀 더 공고히 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도 크다"고 말했다. 또 "당장 4월 국회에서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여러 현안이 있는데, 현안에 있어서 충분히 소통과 협의를 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고 민생을 우선시하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박 대표님과는 상당한 신뢰 관계가 있다. 어려운 시절 여야 협상을 할 때도 항상 소통이 잘 되고 저보다 더 치밀하신 분"이라면서 "디테일이나 협상 전반에 이해가 높아서 협상 파트너로서는 정말 최고의 파트너"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임기가 다 돼 가서 대단히 아쉽지만, 4월 국회라도 박 대표님과 소통하고 협치하면서 국민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1대 국회 남은 1년이라도 국민께 정말 신뢰받는 모습을 함께 보여드려야 될 막다른 골목까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처럼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그 길로만 간다면 우리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우리 정치는 자칫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절박감이 있다"며 "앞으로 모든 현안을 박 대표님과 잘 상의하면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면 그 지점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소폭 하락 36.4%

리얼미터…국힘 37%·민주 45.9%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전주보다 소폭 하락한 30% 중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이달 3일부터 7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3%포인트(p) 하락한 36.4%로 집계됐다.

지난달 초 40%대였던 긍정 평가는 하락세를 보인 뒤 최근 4주 연속 36%대(36.8%→36.0%→36.7%→36.4%)에 머물고 있다.

부정 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0.6%p 내린 61.0%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3월 둘째 주부터 직전 조사까지 4주 연속 상승(53.2%→58.9%→60.4%→61.2%→61.6%)한 바 있다.

긍정 평가는 60대(6.8%p↑)와 진보층(2.2%p↑), 농림어업(5.1%p↑) 등에서 주로 올랐고, 부정 평가는 70대 이상(3.6%p↑)과 보수층(2.7%p↑), 가정주부(8.1%p↑)에서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0.1%p 내린 37.0%, 더불어민주당이 1.2%p 내린 45.9%로 조사됐다. 정의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0.6%p 오른 3.7%로 집계됐고, 무당층 비율은 0.2%p 오른 11.2%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1%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국힘 '청년정책네트워크' 신설…청년·대학생 의견 적극 수렴

2030 세대 지지율 회복 총력

국민의힘은 청년·대학생들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정책화하는 '청년정책네트워크' 기구를 신설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김기현 대표가 직접 주재하며 청년 정책에 당이 총력을 쏟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병민 최고위원,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배현진 조직부총장 등과 비공개 청년정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당내 특별위원회나 TF(태스크포스)와 달리, 우리 당에서 활동하지 않는 총학생회나 대학생 등도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해 참여의 폭을 대폭 늘리고, 울타리를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정책네트워크가 당과 민간에서 합동으로 정부·여당의 청년정책을 이끌어가고 고민하는 기구가 될 수 있게 준비할 것"이라며 "다음 주 중 출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년정책네트워크에는 김 대표를 비롯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 최고위원·장 청년최고위원, 배 부총장 등 30·40세대 지도부가 참여하고, 향후 선임될 정책위 청년부의장, 청년대변인 등도 당연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김 대표는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2030세대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청년들과 스킨십을 늘리고 당의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김 대표가 청년세대와 관련된 현장 접촉을 늘리고,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총력으로 관심을 표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며 "청년들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비용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지에 대해 중점으로 이야기가 나왔고, 구체적 내용은 현장 행보 등을 통해 풀어내려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청년지도부는 오는 13일 대통령실·중소벤처기업부 청년 정책 담당자와 함께 '청년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를 열고 중소기업 청년들을 만날 예정이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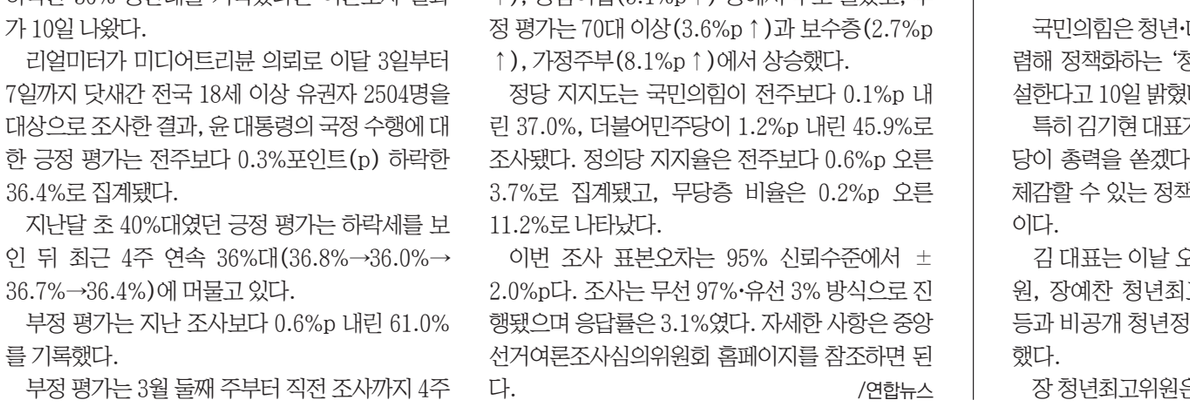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든든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봄에 떠나는 그리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